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頁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나치스政府의 强硬外交
盲目的外交는 自殺行爲

一

十七日 國際聯盟理事會는 對獨問責案으로 (一)「獨逸政府는 스스로 公約한 諸義務를 履行치안코 國際關係條約成員에게 賦課된 義務를 侵犯하엿다」는것과 (二)「國際條約의 一方的破棄를 非難하는同時에 理事會는 此에 對抗할 必要한 一切의措置가 時急하다는것을 確認한다」는 決議案을 通過한後 이 決議案에 基하야 將來의 條約侵犯國에 對한 制裁方法으로 財政的 經濟的制裁手段을 講究하기로하고 이 成案을 作成하기 爲하야 英佛蘇伊等 十三個國에 專門委員을 任命하엿다。

聯盟의 現在規約에 비추어 以上問責決議案은 避치못할 當然한 手段結果일는지 모르겟스나 世界平和維持機構로서의 國際聯盟의 以上決議는 果然 平和를 助長할는지가 絶對疑問일뿐아니라 萬若 獨逸에 經濟封鎖를 敢行한다면 그結果는 平和와는 正反對의 戰爭그것을 招來할것이다。또 他面으로 생각할때에 以上은 極端의 境遇이오 事實에 잇서서는 現下 國際情勢로는 獨逸經濟封鎖는 그實現性이 極히 薄弱하다。그리고 薄弱한 實現性의 決議案을 通過식힌다는것은 聯盟威信確保上 愼重히 생각할 問題이며 現下威信이 떠러질대로 떠러진 聯盟으로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二

그러나 只今 여게서 問題삼으려하는것은 이點이아니다。스트레자 會議에서 軍事的同盟性을 多分히 包含한 東歐로카르노條約締結을 贊同한 英佛伊共同宣言을 發表하게하엿고 聯盟理事會에서 波蘭까지 包含하야 全員一致로 强硬한 對獨問責決議案의 通過를 보게하엿다는 事實은 그將來할 結果如何는 暫間問題외로 하드래도 現瞬間에 잇서서 나치스의 盲目的外交가 完全히 失敗한것만은 拒否할수업는 일인가한다。더욱이 昨日夕刊報道에依하면 나치스政府는 聯盟理事會에서 英國이 取한態度가 英獨會談의 背信行爲라하야 英國政府에 嚴重한抗議를提出하엿다한다。英獨會談內容이어떠한것인지는 確實히 알수업스나 世人이 周知하는바와가티 大戰以後 終始一貫으로 獨逸에 同情的態度를 取하여온나라는 列强中 오즉 英國박게업다。英國의 對獨態度는 傳統的 大陸政策의 發動으로 歐洲大陸에잇서서의 勢力均衡을 만들기爲한것임은 勿論이어니와 如何든 이러한 心算으로 英國은 獨逸에同情하며 베르사이유條約의 漸進的改正을 目標로 努力하여온터이므로 이傳統的政策이 根本的으로 變動되여 다른코-스로 나가리라고는 밋기 어렵다하드래도 最近 獨逸의 非妥協的態度에는 英國까지도 不滿을 갓고 잇는것만은 事實이다。이러한 지음에 獨政府가 또다시 英國의 不信行爲를 非難하고 强硬한抗議를 提出한다는것은 나치스外交의 盲目的蠻勇을 如實히 表示하는듯하다。

三

「外交란 結局 妥協이며 折衷이다」라고 어떤 政治哲學者가 말하엿다 하거니와 이말은 어느 程度와 眞意를 包含한 말인가 한다。萬若 어떤 問題에 對하야 始終一貫으로 當初主張을 固執할려면 그런 나라는 처음부터 國際問題를 討議하려 國際會合에 出席할 必要가 업는까닭이다。그러나 이것은 外交上 原則이 아니며 場合에 따라서는 妥協的外交가 非常時外交를 以上의 奏効를 하는수도잇다。一九三三年正月 나치스가 政權을 잡은以來 히틀러의 强硬外交는 確實히 獨逸의 國際的地位를 向上식혓스며 失墜된 國權回復에 貢獻이 만핫다。그러나 强硬外交에도 그限度가잇는 것이다。過去에잇서서 强硬外交가 成功하엿스나 이後에도 그 强硬外交가 不斷히 成功할수 잇다는 것은 아니다。今後 나치스外交가 「盲目的外交」로 化한다면 「自殺外交」가 아니라 할수업다。今後 나치스外交의 進路는 實로 多難할것이다。

審議會委員의銓衡 尙今도 五里霧中

十九日閣議서官制는決定되엿스나 調査局長官은人選方針도아죽對立

발서 政府無方針暴露

【電通東京電話】政府는十九日閣議에서 內閣審議會及調査局官制案을決定하고 마친내來二十二日長老會議에서 委員銓衡의最後的方針을決定하기爲하야 町田、床次、內田의 各政黨出身閣僚를비롯하야 兒玉、後藤의貴族院出身閣僚는專혀 各方面의 情報를蒐集하고잇다 齋藤子、山本、고의兩長老를除하고는 依然確定되지못하고 特히貴族院의 情勢도非常히惡化하고 政友會의內部事情도아직 二十二日長老會議가 潑澁하야 大體로方針을內定하기는至難視되여잇다 特히調査局長官의人選에 關하여는長老會議에 企圖하는大物本位와 官僚閣僚가標榜하는人材本位가對立하야特히副會長인高橋藏相과의關係를考慮하기爲하야 暗礁에逢着되여彷徨하고잇는狀態로 벌서부터政府首腦部의 無方針을 暴露하려하고잇다 그리고岡田首相은 準備工作의終了를 기다려今月二十五日頃興津에 西園寺公을 訪問하고過般來廣次長老會議에서 確立된政府의今後의 取할方策에對하야諒解를求하야가지고 審議會委員人選交涉에 着手키로되엿는데 最難關인 政友會와의 關係에對하여는特히 愼重을期하야各方面에對한委員이 大略內定될時期를보아今月下旬乃至는 五月初에首相自身이鈴木總裁를 訪問하고政府援助의懇請을行하기로되엿다

甘二日長老會議開催 委員의人選內定

園公訪問前後하야就任交涉

政友會에는腹背作戰

【電通東京電話】政府의 內閣審議會組織工作은 來二十二日岡田首相、高橋藏相、床次遞相、町田商相의 四長老會議에서 委員候補者의 人選을內定한後 岡田首相의 西園寺公訪問과 前後하야 드듸어 委員就任交涉을開始할터인데 政友會에對한 交涉에對해서는 政友會의反對가 依然强硬하기때문에 政府에서도 特히 愼重한態度로써 萬全을期하고 大體如左한方針으로 邁進하기로되엿다

即第一着으로는 岡田首相自身이鈴木總裁를 訪問하고 練達堪能한 人材로內閣審議會를組織하는데 對해서는 政友會側으로부터도 委員을參加케하야 援助해달라는旨를 懇請할것 다음第二段으로는 鈴木總裁로부터 拒絶的回答에 接한 境遇에는 政府에서 豫定한 候補者에게 直接交涉할것

그리고右와如히 政友會에對한表面的交涉을行할 時期는岡田首相의 西園寺公訪問後이오 內閣調査局官制에 對한樞密院側의 審査가大體終了한때 即五月上旬이라고보인다 그리고 끗까지 政友會에서 委員이不參하는 最惡의境遇에는 政友會側을除去하고他에委員을求하며 끗까지 豫定대로十五名의委員을擧하야 審議會를成立시킬方針이다

審議會誕生으로 整理될調査會

【電通東京電話】內閣審議會는豫定대로五月初旬에 實現될터인데 此를機會로 內閣會議開始하야 各省에關하는 各種審議會調査會와 委員會의 再檢討를 行하야有名無實한委員會及內閣審議會에包括될수잇는性質의것은 審議會에包括할方針下에 미리適當한整理를 行하기爲하야 調査를進行하고잇는데現在一般特別兩會計를 合하야審議會九、調査會二十五、委員會六十八、審査會十三、評議會六 合計百二十一에達하는데 其中關稅調査會 米穀委員會와如히法規의發動에關한 諮問機關은存置할 必要가잇스나 其外에對하여는適當히考慮하야 될수잇는데로其數를減할方針인데 其結果整理될것은次와如하다

▲一般會計 神社調査會▲雷害對策調査會▲資源審議會▲文政審議會▲東北振興調査會▲肥料業統制委員會▲學生思想問題調査委員會▲防空評議會▲敎育調査會▲買收生絲審査會▲交通審議會▲農業制度調査會▲失業對策委員會▲米穀對策委員會

▲特別會計 農村振興委員會

英中借款說 外務省不信

【東京電話聯合】英國中國間에二千萬磅의借款이 成立되얏다는報道에對하야 日本外務省에서는意外로생각하는데日本으로서는單獨借款에對하야 斷乎反對할意思를固持하고 그外에對하야는 拱手하지안을態度를 取하고잇다 然이나右借款問題에 關하야英國政府가萬一 如斯한 問題에 英中兩國이談合하는境遇에는 右內容經過를日本側에通達하야 中國側으로부터日本의 意思表示하기로되엿는데 如斯히借款을秘密裡에締結하려고하는일은豫想以外라고信하고잇다

海軍協會朝鮮本部 創立總會및發會式

海軍協會朝鮮本部 創立總會와發會式은 明二十一日午後一時부터 竹添町金融組合聯合會講堂에서 創立總會를 同二時半부터 發會式을 擧行하기로되엿다 먼저 時實委員長으로부터 一場의 인사가잇슨後 有賀殖銀頭取를 座長에推載하고 渡邊理事의 經過報告에 뒤니어 會則을 審議한다음朝鮮本部長에 今井田政務總監을推薦 今井田本部長就任인사를 述하고 役員推薦等이잇슨後 閉會한다음 同二時半부터 發會式으로옴마 本部長祝辭、本協會長告辭、海軍大臣、總督、小林要港部司令官、林男爵等來賓의祝辭가 잇고 祝宴으로옴길터이다 그리고 同日午後七時부터 飯田海軍中將의「軍備縮小와 太平洋問題」라는 講演이잇고 海軍映畵의 映寫도 行할터이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貢獻의大合奏

宣川李昌錫氏가 宣川信聖學校에六萬圓을 寄附하고 晋州 洪淳律氏가 晋州女子高普에 一萬圓을 寄附하고 ... 學校와 安州高普에 各各數十萬圓을 寄附하얏다。... 記憶이 아직도 새로운 이때에 이러한 消息을 또듣는것은 참으로깃븐 일이다。이것은 우리 朝鮮民族의 公益에 對한 貢獻心이 어떠케 豐富한가를 證明하는 것이다。民族의 公益에 對한 貢獻心이 어떠케 豐富한가를 證明하는 同時에 民族前途에 큰光明을 주는 事實들이다。

平壤의 故白善行女史와 晋川의 故金在戶女史、金某氏의 貢獻心의 擧動이 되엇거니와 이러한 貢獻心이 야말로 民族의 生命이다。그러하기 우리는 同胞가 다 그러하기를 바라거니와 特히 새로 자라나는 靑年男女에게 對하야 이를 直 有産有識階級의 責任的貢獻이 오 先祖의 高貴한 精神의 傳統을 忠實하게 繼續하기를 바랄수밧게 업다。

朝鮮民族의 前途는 아직도 多事하다。文化的으로 보아서 文盲、普通敎育과 成人敎育의 缺乏、農漁山村民의 敎養이라는 敎化上의 各種文化機關의 整備와 古蹟的으로 보아서도 文化遺産保存의 諸問題가 山積되엿다。經濟的으로 보아서도 農村의 不振、信用組合의 缺乏、消費、販賣組合의 不振、工業의 萎微、水產、石炭、의 利用하는 工業의 諸問題、朝鮮民族이 살기爲하야는 絶對로 必要한 모든 事業이 有産有識階級의 貢獻을 기다리고 잇다。

現在 朝鮮民族이 所有한 資力과 技術力과 組織的指導力을 總動員하야 革新한 一大文化經濟運動을 하여야만 우리의 前途가 光明으로 되어질것이다。

이를 爲하야 有產有識한 志士들은 저마다 「나」를버리고 오직 「우리」가 되어서 제가 所有한 資力과 知力을 가지고 서로 차자 모여 貢獻의 大合奏를 演出할것이니 이 속에 個人의 生命과 榮譽가 잇고 同時에 民族의 榮光이 영원할것을 確信할것이다。

一木樞相의 辭任說否定

單純한身病때문

【電通東京電話】一木樞密院議長은天皇機關說問題로 最近에는 審議會를 缺席하야 이미除服出仕의御裁可를得하얏지만은 滿洲國皇帝陛下의奉迎을爲始하야 宮中의御儀式에도參列치안코 自邸에서面會도謝絶하고 다만 靜養中이다 年期는또過般議會를 通過한諸法案에關한 樞府御諮詢案의審議를 앞두고 樞府側에서는 平沼副議長이 議長의任務를 代行하고잇는 形便이다 政府部內에서는 一木樞相의 休養이 이以上長期에 亘할必要가잇슬境遇에는 平素의一木樞相의性格으로보아 自己의責任에對하야무슨考慮가 잇지안흘가憂慮하고잇다 然이나 樞府側에서는 樞相의身病은 一時的이고 周圍의忠告에依한것이며 進退問題는絶對로이러나지안는다고 極力樞相의辭任說을 否定하는態度를取하고잇다

하長官藏相訪問

【東京電話聯合】訪日中인 滿洲國經濟部大臣 하長官은 十九日午後三時四十五分 永田町藏相官邸에高橋藏相을訪問하고 訪日人事를하고 여러가지懇談을거듭한후 同四時辭去하엿다

商工省의輸出統制 朝鮮에影響重大

拓務省에審議機關論

【電通東京電話】最近에貿易品의輸出統制가 日本內地産業本位로야 外地産業을閑却하는現狀에 잇서서이때문에 發達의途上에잇는外地産業에 與하는打擊이 甚大함에鑑하야 拓務省에서는 目下그打開策을 考究中이다 卽最近의例로서는 特히朝鮮産業問題인데 그他에잇서서도 日本內地에서 實施中의 輸出檢査가外地에서 實行되지안흔結合으로 米檢 査品이外地에流入하야 往往히外地生産者에게 威脅을與하는現狀이다 그中에서도 세멘트(朝鮮)、고무靴、發靴、織物等이 가장甚함에도不拘하고 商工省은外地産業의 實情을無視하는統制를 加하려고하는 傾向임으로 拓務省으로서는 이에對抗하야內外地協力하야統制하려고새로拓務審議機關을組織하려고努力中이다

다다넬스再武裝要求後 巴爾幹風雲險惡

불가리아의再軍備는阻止不能狀態

諸國이다軍擴에沒頭

【아텐스十九日發聯合】빨칸協定에서 겨우小康을 維持한 빨칸天地는 土耳其政府의 다다넬스海峽의 再武裝要求以來 依然風雲이急을告하야 불가리아의 再軍備도 今日와서는 阻止不可能한狀態에잇고 빨칸諸國은 最近軍備競爭에 沒頭하게되엿다 希臘陸軍當局에서 十九日에 發表한 國境防備强化案은 이情勢에 應한 急遽處理로 觀測되는바 政府의支出額은 極秘에附하나 一說에는 七百五十萬도라크마 (五千萬圓)를 支出하엿다고 傳한다

滿洲移民計畫 田中課長이說明

第四日知事會議

道知事會議第四日은 二十日午前九時五十分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會, 連日議論에서 會議를熱心히 傍聽하고잇던 宇垣總督은 仁川에 靜養次로가고보이지 아니하엿다 日程의協議事項을第五日에讓하고 먼저總督府가 昭和十一年度부터計劃하려는 滿洲大移民에關하야 田中外事課長으로부터 約三十分동안 經過를述하엿다 다음大串朝鮮軍參謀長으로부터 軍의 希望意見이잇슨후 十時五十分第四日의會議를마첫다

閻錫山氏主役 辛亥革命映畫化

【山海關二十日聯合】山西省의實權者閻錫山氏는 辛亥革命民國建設의過程을映畫化하기로 決定하고 北平連華映片公司에서스토-리도되엿스므로近近撮影을開始하리라한다 그런데閻錫山氏는自己가主役으로 出場하고同氏參謀도는山西의長老도助演하리라한다

中樞院參議發令

【東京電話聯合】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는廿日左와如히發令하얏다

正四位勳三等 金瑞圭
同 南宮營
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被仰付 (各通)
任官待遇

[illegible] 金正浩 金永澤 李敎植 高一淸
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被仰付 (各通)
任官待遇

人事·集會

▲李先根氏(京城府民病院小兒科長) 二十一日下午一時 京日來靑閣에서 京城帝大附屬醫院小兒科醫局 [illegible] 氏와 結婚

義務敎育과 財源

貿易、資本額 다 朝鮮이 凌駕

【六】 咸尙勳

다음 讀書能力으로 보면 昭和三年末에 文字를 解하고 書하는 사람이 全人口의 二割 朝鮮文을 아는이가 一割五步라 한다 아마 우의 文字를 안다는 數字는 漢文 朝鮮文 무엇이나 아는 이를 全部 合한것이오 둘재것은 朝鮮文만 아는것을 取扱한것 갓다。이로써 보면 朝鮮에 漢文만 알고 朝鮮文을 모르는 사람이 相當히 만흔것을 알수잇다。그리고 그中에서 다시 日本語文을 能히 解書하는 者를 보면 九十四萬七千百四十六人으로 人口千人에 對하야 五一、一八에 該한다。이로써 보면 朝鮮에 文盲者가 만흔것을 可히 알수잇다。明治三十年頃 日本內地의 文盲者가 이러케만치 안햇슬것은 當時 小學校就學生이 이미 四十九萬을 算하야 全人口四千三百人의 一割强을 占하얏슴으로써도 알수 잇다。그러나 朝鮮의 日本語理解者가 全人口의 五步를 不過한다고 반드시 日本內地의 當時의 民度를 當치못한다고는 할수업다 何故오 하면 全人口의 二割을 占한 漢文에 依한 知識者는 純然한 朝鮮語의 理解者보다 정신文化程度가 노프니 漢文은 本來 論理와 政治를 初說한것으로서 民知를 열기에 有效한 까닭이다。日本 明治維新이 短時日에 成功한 重要原因의 하나는 本바탕 文化로서의 漢文文化-即東洋文化가 相當히 發達되야잇슨 까닭이 아닌가。

이와가티 朝鮮의 今日은 向學熱에잇서서 敎育바든 程度에 讀書力에잇서서 明治三十五、六年頃의 日本의 民度에 나리지안코 도리혀 進步하다할만한 點이 잇음을 發見한다。

2· 民力으로본比較

民力을 表示하는 諸條件은 貿易、資本、民間預金、國富、納稅負擔、財政等에 나타난다。明治三十五、六年의 日本內地는 日淸戰爭後 淸國으로부터 二億兩의 賠償金을바다 그것으로서 産業革命이르키든때다。이것은 마치大戰前後하야 朝鮮에 産業革命이 일기始作한것과 갓지안흔가。그러나 兩者를 比較함에잇서서 兩者間의 두가지 比率을 알아야 할지니 하나는 貨幣價値요、하나는 人口다 地域과 時代를 달리한 兩者間의 比較는 반드시 貨幣價値의 差異와 人口의 差異가 問題되는 까닭이다。

이제 兩者의 貨幣價値의 差異를 算出하라면 詳細한 數字와 理論이 必要하나 이곳에는 結論으로서 朝鮮現在의 貨幣價値는 明治三十五、六年頃의 日本內地의 그것에 半쯤된다는것만을 말한다 (이에對한理論은 後日機會에論함) 그리고 明治三十年頃의 日本內地人의 人口數는 四千三百二十餘萬이오 昭和三年末 朝鮮人口는 一千九百十餘萬이니 前者는 後者의 二、七倍이다。

要言하면 今日朝鮮의 貨幣價値는 日本內地의 明治三十五、六年頃의 그것의 二分의 一에 當하고 人口는 後者가 前者의 二倍七이다。이 觀念을 가지고 以下諸經濟關係를 比較하자。

A、貿易上으로본比較

于先 貿易上으로 兩者를 比較하면

明治三十年(日本內地)	
輸出	一六五、一一六千圓
輸入	二六一、五一一
計	四二六、六二七

昭和三年(朝鮮)	
輸移出	三六五、九七八千圓
輸移入	四一三、九九〇
計	七七九、九六八

이어서 昭和三年 朝鮮貿易額은 明治三十年 日本貿易額의 約二倍가되고 이것을 一人當平均額으로 볼진대 日本內地人은 九圓十錢、朝鮮人은 四十一圓餘이어서 朝鮮人이 日本內地人의 約四倍半이다。그러고보면 우에서말한 兩者間의 貨幣價値의差 二倍를 考慮에 너허도 貿易總額에잇서서도 大略同一하고 一人當平均에 서는 朝鮮人이 二倍强될것이다 以下다시 時代와 兩者의 大勢를 뵈우기爲하야 數三年間貿易額 累年表를揭하면 如左하다

年次	日本內地貿易總額 百萬圓
明治二十六年	一八〇
二十七年	二三五
二十八年	二七六
二十九年	三〇〇
三十年	四二七

年次	朝鮮貿易總額 百萬圓
大正十三年	六三八
昭和元年	七三五
二年	七四二
三年	七七九

過去五年間에 이러한지라、朝鮮의 後五年도 大略이러치안흘수업슬것이다。미루어大勢를 斟酌할수잇다

B、資金上으로본比較

貿易의 一例가 經濟全般에 通한다 이제 會社 資本額上으로 兩者를 比較하면

年次	全會社拂込額
明治三十年(日本內地)	五三二、五二二千圓
昭和三年(朝鮮)	一、五八八、八三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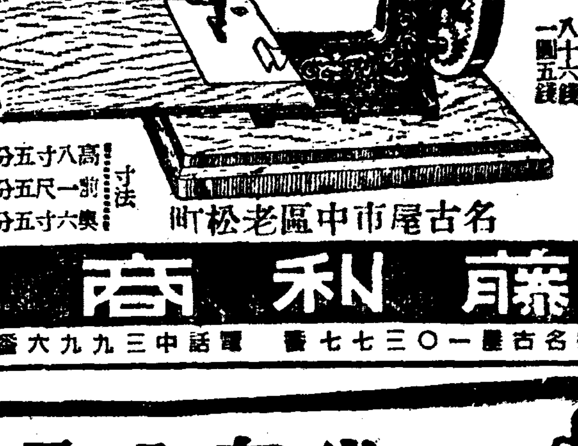
內譯(朝鮮에本店둔 會社의것 二四八、一〇八圓)朝鮮外에 本店둔會社의것 一、三四〇、七二六圓)

이제 右의 貨幣價値의 差를 考慮에너코 兩者를 比較하면 朝鮮의 資本額이 日本內地의 그것에 三倍에 相當하다。朝鮮의 그것은 오히려 三、四割多額일것이오、그리고 다시 이것을 人口一人當平均으로 보면 貨幣價値의 差를 考慮에 너코서도 約二倍半의 資本을 가졋다하겟다 이제 또한 資本增加의 大勢를 알기爲하야 數年間 兩者의 資本額을 揭載하면 如左하다

年次	日本內地全會社拂込資金 百萬圓
明治廿六年	二一〇
廿七年	一四八
廿八年	一七四
廿九年	三九七
三十年	五三二

年次	朝鮮全會社拂込資金 百萬圓
大正十三年 ([illegible])	一、二五七
十四年 ([illegible])	一、三八一
昭和元年 ([illegible])	一、六五四
二年 ([illegible])	一、六〇七
三年 ([illegible])	一、五八八

ノーブルミシン



一家에一臺! 家庭의寶

初心者라도洋服이나韓服이나 簡單히할수잇는 只今大流行의 家庭式國産ノーブルミシン의 使用을勸함

宣傳中左記特價로提供함

大特價 一臺 九圓五十錢

一臺의小包送料 先金이면 內地 五十六錢 朝鮮 一圓二十八錢

代金引換 ...

說明書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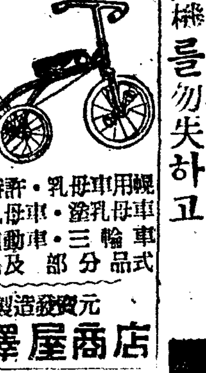
本機는 긴김기에나 뜻가에나 便利 一般家庭的完全한 優秀品으로 特히初心者의 練習用으로는 最適이다

只今곳求하시라 이好機를勿失하고

寸法 高八寸五分 幅一尺五分 奧六寸五分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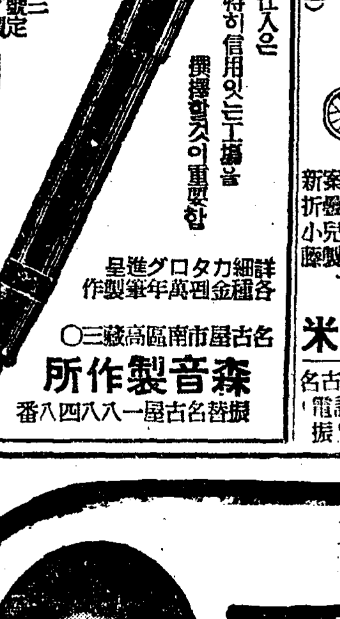


(カタログ進呈)

新案特許·乳母車用 乳母車·折疊乳母車·三輪車 小兒自動車 及 部分品

製造發賣元 米澤屋商店

名古屋市東區駿河町二 電話東(4)5671番 振替名古屋17041番



最新 록키一型

高級萬年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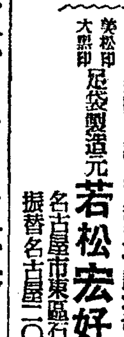
宣傳奉仕特賣中 最新록키一型 三八金本張裝具付 三號ペン付 定價 三圓

萬年筆仕入은 特히信用잇는工場을 選擇할것이 重要함

見本希望하시는분은 九十二錢을 振替로前金付送하라 代引은拒絶

詳細カタログ進呈 各種金ペン萬年筆製作

名古屋市南區高藏三〇 森音製作所 振替名古屋一八八四八番



美松印 大黑印

春、夏足袋大奉仕

製造元直賣品!!

(新聞名記入하야 カタログ請求하시오)

美松印 大黑印 足袋製造元 若松宏好商店

名古屋市東區石町 振替名古屋二〇九三八番

◎特約販賣店大募集

メリヤス雜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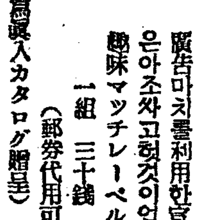
어느분이나 당신의 商店에서 우리商店과 去來를願하신 분이 게십닛가? 貴店에서願하심닛가?

너무느저未安합니다。빨니 商報를請求하시면곳보내드림니다

名古屋市中區南大津町 メリヤス雜貨 卸商 田組與商店

電話中一〇七二 振替名古屋一〇七七

廣吉マッチ



어떤商賣에도좀利用하시오

廣告マッチ!!

廣告效果一〇〇퍼센트 廣告마치를 利用한宣傳法은아조싸고 유효한것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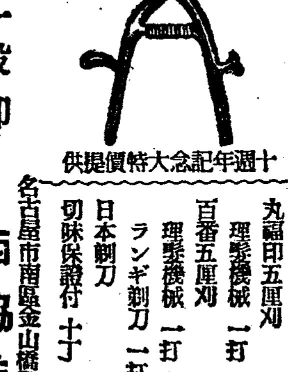
趣味マッチレーベル 一組 三十錢 (郵券代用可)

(通知次第商標入カタログ贈呈)

名古屋市石町二丁目 富士紙工印刷所

電話東二六七九·東二七〇六番 振替名古屋一九四〇八番

理髮機械製造直賣



十週年記念大特價提供

人形印五厘刈 理髮機械 一打 八圓五十錢

丸福印五厘刈 理髮機械 一打 九圓五十錢

百番五厘刈 理髮機械 一打 六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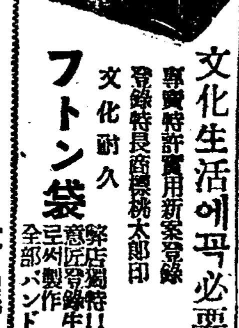
ランギ剃刀 一打 一圓

日本剃刀 切味保證付 十丁 三圓五十錢

理髮器具一般卸 西脇商店

名古屋市南區金山橋電停西側

實用新案 意匠登錄 型錄進呈



安全ブランコ 一個 一圓九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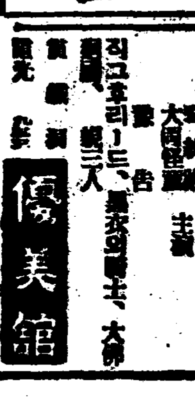
文化生活에꼭必要한

フトン袋

文化耐久 事實特許實用新案登錄 登錄特長商標桃太郎印

祭店獨特!! 意匠登錄生地 全部バンド付

名古屋市西區伏見町二丁目 長尾商店 振替名古屋二二〇六 電本四一



はれやか

毎日 아침 一服

各地出張所長募集

二十五歲以上의男女。下記假事務所로履歷書添附하야送하라。面會日通知함。身元保證人二名要함。月手當六十圓以上。

京城府靑葉町二ノ七三小林內 復興貯蓄債券現物獎勵部 鮮滿總支部

筆生

滿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꼭될수잇는 ... 實務具備學生·婦人·婦女子最適한일 ... 無休 永續的收入 ... 詳細 ...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피움! 히박고

腫氣 創傷 青山膏

價定 10 20 30 30 50 1.00

京城光化門四街里 化學研究所 青山藥局

電話光化門1171 振替京城18135

代理店 新井藥房·木村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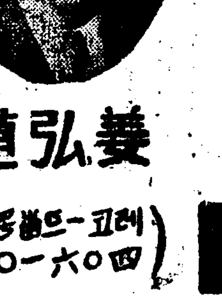
伊勢神宮御料酒

斯界의最高權威

白鷹

宿醉가 絶對업는 保健의淸酒

ハクタカ



半島를震動하는

爆發的人氣!!

鬼才 金駿泳 作曲

青春打鈴

姜弘植

레코드番號 四〇六一〇

콜럼비아레코-드

優美館

四月二十日부터晝夜三回特別大興行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極樂콩그騷動

透明人間

汝の名は女なり

弱きものよ

優美館

春郊名山 二拍子行脚 冠岳山篇

山中에尋路難! 斷崖石壁을强行軍

―唾棄할功名心에蹂躪된大自然의風致―

【十二】 豪快·海拔二千尺上界春光

文‥石村 畵‥熊超 寫‥鎬玉

앞길이 바위므로 서로 계속하야 미처 마음의 떨림을 그물에 싸처, 보내기도전에 우리는 한숨남기고 시내까지 떠날수밖게업섯다 겨우 차저든것은 거기서부터 도언덕을 넘고 수풀을 지나서 고주산정(山頂)에 버처다

경(景)을 좇밧과 푸른바위의 틈틈에는 봉봉빗 진달래가 아롱지게수노아 젓는데 굽하고 느린 언덕이 서로 음영(陰影)을지어서 스스로 한폭 회려한 불란서자수(佛蘭西刺繡)를이루엇다

일즉이 어느경숭한이가 진달래를두고 궁벽한무궁화(無窮花)를 가르처 조선의꽃이라고 불렀든가 무궁화 무궁하지못하지 오래인 오늘에도 호올로진달래는 쉼거주는이도 길러주는이도업시 봄마다 삼천리강산을 쫒게단장해주기 위하야 벌도을차저보기좋앗지안는다

◇

멀리두러운 솔바람계하야 그윽히들려오는 풍경소리에 절이각가움을깨닷고 머리를 추어드니 이마우에는 성내되뿌리가 잡바질드시 기우려저잇다 관악의위험이 자못심상치안흠에 저도모르게 소름이끼처다그러나벌리까지 마저준 그럼의주지는 이는염불암(念佛庵) 어오삼막사는아직도 한고개를 너머서 심오분가량은더가야 한다고일러주다

연불암과 삼막사를 안표하다끼고잇는 이험산은 일름하삼성산(三聖山)이라고 하는데 저유관악의 주봉이오 관악의진풍경은삼성산에에있지 대에에첫이잇다는것이다 현대진경로마루에떠가는도지고려흘로다시장어들수밖게었었다

위선 라는뭇을 추정라정으로 뒤의 작근계도를 따라가나서면에서 로원(甘露泉)이라는 세곳차가 새여저잇는데 그찬기운이 죽이떨투를 째르는것갓다

석벽에는 그바게도 수없는사람의 일홈들이 가로 세로 색여저잇는데 아마도 이곳에한번들를사진사람은 저마다 그자취를남기기위하야 비싼 석공(石工)을불러이런가보다 어려석은 공명심을에까지 우리와가려 길에비빼서 산아람다운시내울에 마음을 미처쌧지못헷나보다

그러나만약에 그일흠들이 후세어느미련한사자(史家)도참고가여하려고 하지안는신통치 안흔일흠들일진대부질업시 명산대천을 더럽혀서 천추에조소만을 남길것을 생각하니 나는 그들을위하야 슬퍼하지안흘수업섯다

여가는 농중동을위하여서 무조건하고 찬성할수업는것이다

우리는도다시 산허리에 비탈진조악둘길을 더듬어올라 가기시작헷다잣군과리군은앗가부러도시게를 여러번꺼내보면서아주방불히알시간이 걸렸어저가는데 대하야 서로서로주의를환기하기를잣조한다 나역시 풍경에 한취하어 어느새 산간의진미에 대한 식욕으로 변하야 돌짜리를가래서 드듸는다리가 허둥지둥해저둘어지할수가업섯다 산모퉁을 너머서니 삼성산이볼쪽날개를 낭으로등린천곳에 면간절간이 악겨잇는것이뵈이는데 바로 그것이 삼막사엿다 절바인턴에서는 두어두던의나물바를 손질하고 잇는중인듯한 사나히 몃사람이 구를망주고 우리를 바라본다 생각컨대 산중에도 절경한바리 보여지안흐니 어곳에서는 서로한처두쳐와지정을다토는의찻한쌓홈은자최를큰헛쓸것이다

◇

절에당도한것은 바로열두시 상십분 절사무실에서 잠시 길을쉬기로햇다

삼성산꼿덩이으로 병풍을 삼아놓지고남천에는볼빗쏘다부을러쓴기이한풍경을두사에에엿보는이러를 때하야 자리를잡고 동웅나들여기동쪽세우고정교를다하야지온사찰의건울이 비록낫새의 나름도드른 산중이어만당당한어풍이사람의마음을위압하는것이잇다

중천에걸린찰관한 안산의 일봉을 스님에게물엇드니 속인의입에 오를것을꺼려서그러인지 머리를설레설레흔들면서모른다고만대답한다

◇

방한구석에웅웅기와래코-든찾자가 노하잇스므로하얏조를가하야열어보앗스나잇는것은자근남봉가여질스럽은 종제가 떠위뿐이다 이욱고 밥상이 드레왕다산나물도라지체에 투가까지 바처드레온것이 오십전으로는 싸기도하고지극히 산도하기에 역시이곳에도손의발길이 자근듯시면서 스님대려차저오는 손님이 만흔가고물엇더니 일요일이면 수백명을 세인다고자못 자랑스러히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중에는 잡스러운손님도 엇슬거라고 하면서 스님의얼굴을 건너질 해보앗드니 그는입을우울하다가 끈내그려라고 대답헤버린다 산중에서 이러케 정직한스님을 맛나는일흔 통쾌하게이지만 그추잡한레코-드도 명컁그레한후로는 손님이 여곳에가져온것이기쉽고 탈아레비긴창상 그볼에서 염불소리가 법계(法界)에차올때에 정간의이꿀병에서는 봉에취한몹터른 속사임이 방울새것을 생각하니 선계를위하야 저옥히악가운감이잇다

◇

스님에게 대략길을 무러가지고 약한시간이나 쉬인다음에 바삐바삐길을떠낫다

얼마를 가지못해서 깊은가작히 절벽미레서 사라저서 떼이상발을 내드딜데를알수가업다아모리『길』도주지아니한 손님이기로서니 령마루에까지나마경울인도해주지안흔스님의일이 괴심하기 짝이업다 세사람은 길이다한곳에 멈춰서서 한참동안이나 머리를기우려 보앗스나 결국은이산을 넘기마하면되는일이니 길이 아잇든업든 그대로 일직선으로 벼랑을짜하기로 결의헤다 서로번가라서 앞삽이를서가면서 절벽으로피키을살아 바위틈기여오르고 돌놀라서 한시간만에 겨우산상에 이르럿다 동쪽에는 멀이축히 배엿고산지물건것스나 한편은 헤빈물어되앗다한다 (계속)

(사진은 관악산상에서)

農村은窮乏하여가되 地方觀光客何其多

거리에는사기상인만꾀이어

果然觀光의所得은무엇?

▼서울구경(京城)구경 구십춘광호시절을 리용하야이지웅에 전조선각지로부터 관광단의떼가 홍수와가티 밀려들고잇다 지난십구일 함경선(咸鏡線) 경원선(京元線)등지로부터 림시렬차로 일천칠백명이 서울로온것을비롯하야 이십일에는 대구(大邱)부산(釜山)등지로부터 일천오백여명이 경성에온이외에 각지방으로부터 한두명식 혹은삼십명내지백명식 경성으로 밀려드는관광단은 거이헤아릴수업는 형편이다

▼이관광단에 참가한이들은 대개로인이만코 그중에도 녀자가만흔것이 특색이다 이상일레로종로네거리나 남대문통 너른거리등장안의 명소라는명소에는 시골로부터 몰려드는관광단원으로 넘처저자못홍잡되고잇다 이들은 구경에눈이팔리우는 한편으로 안내자까지 시언치못하야 어느상점이나 공원등에 들어다가는 미처일행을쫏처가지못하고 길을일코 헤매이다가 하로에도 명사람식도 서울에서 할수업시 경찰서에 보호되는이가 잇서에서는 여간 두통을알코잇지안라고한다

▼서울지리나 잘알고 도상당히 편팡외식을 안식하고잇는 안내자와함께 온이들은 몰려도어편안내자는 안내자그자신이 서울이초행이여서 종로가어데인지도 아지못하고 본정(本町)이 어데지도아지못하야 단원들을데리고 어데를어떠케 구경하도록 안내할줄을모려 갈팡질팡하는이가 만타 전차를어떠케탓스면 조흘지 아지못하야전차가몃개식 지나가도 우두머이서잇다가 겨우타는현상으로 아모것도모르고 안내자의 지휘만바라고 쫏처다니는 단원들을 고생케한다 엇지그뿐이랴 순하기가 양가튼그들을 질질끌고 이리로저리로거리로 헤매다가 해를보내고그대로아모소득업시 돌어가는이도 만흔형편으로 그들은 무엇하려엽는돈을 헤푸게쓰며 일부러 서울까지와서 흥진만장한곳에서 두뺨에 땀을질철흘리고 다니는지 초라한행색이 한심스러워보인다

▼더군다나 농업스면 코비여먹으려는 사람들는 시골서먹을밥이와다고 거리거리에다 사긔의그물을처노코 이순진한 시골부녀들이 걸리도록 온갓수술을다하여 꽤이고잇다 에누리가 그리심할중들은는 시골양반들은 거리의행상인이 달라는대로 그대로주고 사는이가만허 심한례를들면 어떤시골부인은 십전짜리도 못되는 도금반지한개를 금반지로알고 일원이나주고산이조차잇서 그들은 가벼운주머니를 한푼업시 사취당하고마는이가 만타 그러고 당오푸리를 몰려서 열량이라면 이십전이줄돌이고 일원을내는이도 업지안타

▼과연 관광단그들은 무엇을어들것인가 다만엇는것은 면원만십원의비용소비와 이상일 쫏처다니기에 어든피로뿐일것이다 물론시골서 나가지고일평생 땅파고일하야만히 저축해노코 로후의자미로 서울구경을 와다하면 몰으거니와 업는돈에 주머니를털어가지고 서울까지와서 아무소득업시 그대로 돌어간다면 뒤에남는것이 무엇일것인가! 이관광단주최자는 대개 철도국정거장이라하니 철도국 후자중가에는 조흥지몰으나 궁핍하

孤兒親侄버리고 몰래移住한姑母

三日間헤매든八歲兒의呼訴

애꾸진警察이保護中

십구일새벽에 제동(齋洞)파출소원은재동네거리를돌면서방황하고 잇는소년을 발견하고 다려다가물어보앗드니 그는운니동(雲泥洞) 일백십이번지에 본적을둔 김병오(金炳五)(八)로서 그의아버지는일즉히 절처자장을다니다가 작년엔가을에히죽자 그어머니는병으로 일파동(八判洞)자는고시누에게맛겨두고 부자집어멈으로 드러갓는데그뒤로김병오의고모의집에서는늘그를박해를처하이드니지난 십륙일에는 아츰에 놀리나왓다가 석양에 도라가보닉 그동안애그집에서는 어데로 이사해가버렷다고 한다 그래서 그뒤로사흘동안이나 그고모의 새로운거간집을 차저서 헤매고 다녓스나 찻지못헷다는것이다 종로서에서는 위선그를그서에보호하고 흥심한 고모의행방을 찻는중이라한다

十四名一團의 少年窃盜團

鍾路警察에서檢擧

종로서사법계에서는 얼마전 부터 주소부정의 정원경(鄭元景)(一七)등열네명일단의 소년절도단을 검거하야 취조중인데 그들은십구일 밤에 룡산서(龍山署)에 체포된바 박대길(朴大吉)(一八)을수령으로한절도단의 일당으로서 지난십이월중에 태평통(太平通)이정목 독일공신양행(獨逸共信洋行)에 침입하야 귀금속 일천여원어치를 훔친것을 비롯하야 만흔금품을 서로수집을 보며 교묘하게 시내의여러상점에 출몰하고 잇섯다고 한다

高興警察에서 檢束者自殺

류치장에서목을매이고

應急手當도不及

전남 고흥경찰서(高興警察署)에서는 작십오일에 모조중대범인으로 하모(河某)외 이명을검거하고 극비밀리에 취조하던중 작십구일 밤에돌연히 하모(河某)가 유치장안에서 자긔의입엇던 옷을찌저목을매고 죽어버리엿슴으로 이에놀내인 경찰서에서는 경찰의를불너 응급치료하얏스나 드듸여 소생되지안이하엿다한다

醴泉無名結社事件 五月三日公判延期

【大邱】세칭 례천공산당(醴泉共産黨)사건이라는례천무명결사(無名結社)사건의사실심문과 증인심문은전회까지맛치고검사의구형과 변호사의변론은금십구일로하기로 되엿든바 관계변호사중한영욱(韓永煜)변호사가모상(母喪)을 당하여못나오는것과송긔(松崎)담임검사가경주에출장하엿든관계로오는 오월삼일로 연기되엿는바 원로에온피고들의가족과일반방청자들은 아침부터 오후두시가 넘도록기다리다가연기한다는말을듯고할일업시헤여젓다한다

出家兒二件

봄거리에집을빠아히를들==▲이십일 오후다섯시경 제성명과 주소도모르는 네살가량먹은 조선계집아이가인조견 노랑저고리에 회색바지를입고 종로네거리에서 울고섯는것을 종로서에서 보호중이고

▲동일오후 일곱시반경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오십구번지 압해서정춘화(鄭春花)(六)라고 하는 아이가 집을일코 방황하는것을동삼정목이백번지송계원(宋桂源)의 집에서보호중이고

▲동일 오후일곱시경 시내현저동(峴底洞)사십오번지 삼백이십삼호 류원산(柳元山)의장남 신동철(申東喆)(二)이는 무단히집을나간채 도라오지아니하니 차저달라는 수색원을 소관서대문서에 제출하엿다

警察部活動猛烈 又復一名을檢擧

경긔도 경찰부에서는 수일전부터 홍원(洪原)출생의 청년수명을 검거하고 취조중이라함은 작보와갓지만 이십일새벽에는 다시형사대가 동대문방면에 출동하야청년일명을 검거하고 계속활동중이며 이석일엄이중에는 다시 고목(高木) 김(金)두사찰계원이 급거 모지방으로 출동하리라한다 이로서 사건은 더욱확대되는모양이다

二千五百年前 古樂浪舖道發見

大同郡土城里에서出土

大理耳石附의豪華

방금 동경제국대학(東大)원전(原田)조교수일행이발굴중하고잇는 평양부외의 락랑(樂浪)고적에서는 십륙일에 우연히도 지금부터 이천오백여년전에 건설된 락랑고도의 번화햇든 대리석포도(鋪道)가 발견되어커-다란 센세-슌을 이르키게되엇다 그것은 평양부외 대동군대동면토성리(大同郡大同江面土城里) 락랑고도의중앙부에 박석도지대(舖石道地帶)를 일직이발견햇든 원전조교수일행은 거기에 힘을어더려일 발굴작업을하여오든중 십륙일에이르러 드듸어 기리 륙십미돌 넓이 사메돌의 도로를발견하게되엇다 이로면에는 바석을깔고 이석(耳石)은 대리석을 쓰을통한포도인데 이리하야 이천오백년 녯날의번화햇든전모가나타난것이요 동양의『미라노』가 발굴될것이기대되고잇다

再歸熱病發生

黃海의關門仁川에

警察은防疫에努力中

【仁川】인천시내금곡리(金谷里) 십삼번지 서삼덕(徐三德)(三〇)은 지난 십팔일에 재귀열(再歸熱)병으로판명되엿다 전긔 재귀열병은 작년동긔(冬期)에도 약칠십명을 발생한것을 방역에 노력하야그즉시 진압되얏스나 전긔와가티 도다시발생되야 시내일체를 수색방역하리라는데 그병은 "마라리아"에근사하고 또한장질부사와도 근사한 근래에새로생긴전염병으로 일반은자못 주의할필요이라하며 그병은대개가 더러운의복에서 발생되약이』『벼룩』등이매개하는것이다 일반은 시긔가시긔이니만큼주의할필요이라한다

競馬場에窃盜 金時計를窃取

방금시외 신설리경마장에서 개최중인 경마대회에는 아심일오일전 오백명가량의 입장자가 잇섯는데 이틈을타서 들어온스리에게 시내대도정(大島町) 삼구번지 이등시송(伊藤市松)(六〇)이란 로인은 시가 일백사십원짜리 금시계한개와 시계줄 이백오십원짜리를 절취당하얏슴으로 곳안암리(安岩里)주재소에 계출하야 범인을엄탐중이다

監視船이追擊 銀密輸船顚覆

은을물에넣고빠저는사람

八名中一名은溺死

【新義州】지난십팔일오후령시경 안동현륙번통(六番通)에 거주하는김지화(金志華)(三五)주소부정의 한현조(韓鉉祚)(二四)의 두명은각각대양은 오백원식을 가지고안동현륙도구(六道溝)수상경찰서파출소부근으로부터 신의주미륵동(彌勒洞)리룡옥(李龍玉)(三〇)외 다섯명과적은배에 그은을실고 신의주를향하야 오든중 탐연안동세관감시원지랑호(鎭浪號)에 추격을당하야 압록강상에서 활동사진과방불한 광경을 일우면서 신의주어시장(魚市場)압까지 쫓겨와는데 그때 추격하든감시선은 『봉경어일수선의 선미(船尾)에 부드처파선을식엿다 그리하야 그배에탓든은 밀수자 여덜명은모다 물속으로드려가고 도배밋창에실엇든 대양은 일천애도 물속으로 드려가고말엇다그리하야 배밋창을붓들고 떠나려가든여덜명은 그곳에 잇든다른 적은배들에게 구조되여겨우 목숨을건젓스나 한명은 행방불명이되얏다한다

淺間山爆發

【橋電通】천간산록(淺間山麓)에 잇는군마현장야원(群馬縣長野原) 경찰서로부터 현경찰부에 도착한 보고에의하면 천간산은 이십일오후네시이십삼분에 두번이나 폭발이되엇는데 아직 인축의피해는업는모양이다 그리고 경정택(輕井澤)경찰서의 보고로 그뒤에판명한바에의하면 이번의폭발로 동산봉부근에는 주먹만큼씩한돌이 쏘다지고 경정택정에는 콩알만큼씩한 돌알이 쏘다젓다

男女詐欺賭博團

삼구일은 방범일(防犯日)이라하야시내각경찰에서는그활동에만편올하하던중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동일오후 열한시경 시내창신동(昌信洞)이백이십칠번지 안일룡(安一龍)의 집에서도박 현장을습격하야 동가에류숙하고잇든 마삼봉(馬三奉)(三四)과 옥익광(玉益光)(三○)─명와 그의 두명을 사긔도박죄로체포하여와서는데그들은평양주인안임봉과시내관수동(觀水洞) 경상려관(慶尙旅舘)에묵고잇는방영희(方英姬)(二○)라는 녀자와 수명과 도박을하여오다가 그두명이공모하야 사긔도박을해먹엇는데 그사금액이 상당한액에달하는 모양으로 목하계속하야 엄중취조중이다

暴風警報

四月二十日午後二時仁川觀測所發表 바람이强할러이다南風이西風으로變하며 비가올것이다 平南、咸南北、黃海、京畿、江原、忠南沿岸을 警戒함 低氣壓의中心은 滿洲南部에잇서七四八미리를보히고東南東으로進行中이다

×

二十日午後二時仁川觀測所發表 바람이强할것이다 南風이西風으로돌며비가올것이다西北沿岸及內陸을警戒함 低氣壓의中心은 滿洲南部에잇서七四八미리를보히며 東南東으로進行中이다

日曜講話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예수의復活과生涯 金英珠牧師
前進하자 金英珠牧師

◇英語講習院 午後三時
英語講話 스파이털氏

◇向上會館 午後七時三十分
中道의가리침 李智光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佛敎는人間의宗敎 葆光 朴聖權先生

◇三淸洞敎會 午前十一時
復活 金鎭浩牧師

運動競技

東華對全京城 今日! 決戰

徽文對普成오픈껨

朝鮮中央日報社招聘의 對全京城選拔軍戰은今二十一日 午後二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이라하며 이께임보다먼저午後一時부터는番外로 徽文高普對普成高普의對抗戰을行할터이라한다 東華軍은第一戰에 全京城軍을二對零으로이긴뒤이라 全京城軍으로서는 責任무어운一戰인마큼必勝을期하고對戰할터임으로 자못壯快한熱戰을 展開할것으로豫想된다

◇全京城軍陣容
李惠逢(GK)、朴奎貞(RF)、鄭龍洙(LF)、金容植(CH)、李裕濚(RH)、金炳熙(LH)、李榮敏(FW)、金成玕(FW)、崔成孫(FW)、蔡金鋼(FW)、裵宗浩(FW)、朴孝淸(FW)、高翊寬(FW)、金庚漢(FW)、文二峰(FW)、

八哩마라손 二着은鄭君 孫允益優勝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八哩마라손會 (一名A마라손)는 二十日午後三時부터 光化門……漢江橋往復코-스에서行한바 所要時間 四八分四九秒로 孫允益君이 優勝하엿는데 當日의 着順은다음과갓다

◇往復路着順
▲1 孫允益(京城)四八分四九秒
▲2 鄭壽吉(京城)四九分一四秒
▲3 朴仁鎬(京城)四九分四四秒
▲4 張壽榮(白馬)五〇分廿五秒
▲5 朴仁陽(京城)五一分〇六秒
▲6 李貞根(白馬)五一分一七秒
▲7 梁聖煥(京城)五一分三〇秒
▲8 金範錫(中東)五三分〇七秒
▲9 李承煥(永登浦)五三分二一秒
▲10 文部萬(京城)五五分三九秒

◇記錄對照
第一回孫基禎(養正)四三分二五秒
第二回閔和植(往十)四五分一七秒
第三回孫允益(京城)四八分四九秒

二期制復活한 六大學野球開幕

劈頭에法政一勝

【東京電話聯合】오래만에春秋二期制로復活한 東京六大學野球리─그戰은 二十日法政對東大 慶應對明大戰으로부터 開戰되엇는데今秋米國에서 열리는世界學生野球選手權大會에의 參加와聯關되여 人氣는沸騰하엿다

法政6A 東大1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法	2	0	0	0	2	0	0	2	A	6A
帝	0	0	0	0	0	0	1	0	0	1

四氏審判、帝大先攻으로開始、結局六A對一로法政勝 二時二十九分閉戰 ◇投捕 帝大篠原、瀬崎 法政鶴澤、藤田

明治7A 慶大6

【電通市京電話】東京大學野球리─그慶應對明治一回戰은 二十日午後三時八分부터 神宮球場에서 藤田(球)長澤、森、野本(壘)의 四氏審判 慶大의先攻으로開始、結局七A對六으로 明治勝、閉戰五時五十七分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明大	0	2	0	1	0	2	1	1	A	7A
慶大	1	2	0	0	2	0	0	0	1	6

▲밧데리 慶大─土井、櫻井 明大─吉田、山脇、宇井

明治神競마라손追加

今秋東京에서열리는 第八回明治神宮大會의 陸上競技에는 從來의 種目外에 올림픽制覇를노리는마라손이 追加되엇다。그走路는神宮六鄕校間往復의在來코─스에서 十一月三日에行할러인데 選手權種目에追加協會로부터 選手選拔은各地協會로부터 한다고한다。

本社後援

第八回 全朝鮮力技選手權大會
第五回 全朝鮮器械體操大會

◇日時 四月廿六、七兩日間
◇場所 鐘路基督青年會館
◇申請 四月廿五日까지 氏名、所屬을明記하야 參加金二十錢을添附하야 主催側에申込할것 (力技選手의體重計量은二十五日午後五時에)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세계로 보통하든 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학박사 명의독물의과대학병원에서 실험한결과 차양사용하며、또

이것은 절대무해한약입니다 그약효에대해서도 무효한돈에에는 올도로드리갯것이며 「이이상가는약은 업다」고하는 절대적 신용을 가지고 정제한것이다。 다해보아도효과업는 환자는하로바삐 이약으로써 전치도시리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전치자속출、레장이산갓다

山口縣山口市 古屋準吉
봉인은 지난일월경부터 림질에 걸려 곳산구전매소에서 상원짜리와 사원짜리를 연속복용하엿더니, 심하든증상이업서지고 나어감니다

岐阜縣可兒郡 墨田萬司
소생이 만성림질로 바편원서 마다 귀사의 치림제로 전치하엿습니다 이번에도 재발하엿기에 역시 귀사의 치림제를 복용하야 오날까지 이주일만에 경과가량호합니다

新潟縣中頸城郡 石田正義
봉인은 림질에 걸리어 이번에 귀사의 림질약을 사용하엿삽더니 차차 나어감니다 감사레하나이다

秋田縣平鹿郡 佐佐木雄吉
귀사의 림질약복용후 딸입, 림사는 거의업서지지안습니다

鳥取縣東伯郡 谷口輝雄
림질로 고생하옵더니 복약후의 경과가 양호하야 아품과고통이 개이고 보통때와 다름업시 되엇읍니다

府下泉北郡 山本正香
귀사의 치림약복용한후에 재일로 고름이 머지고 패차해갑니다

神戶市灘區 山村喜一
의사와 그외의약도 복용하엿읍니다마는 전쾌되지도 아니하야 치치에게 귀사의림질약이 평잘든다는 말을듯고 세병을 사다가 먹엇읍니다 지금은 고름도그치고 아픈도개여다

香川縣三豊郡 白川優
소생이 매독으로 고생하더니 덕분에 그후는날로조하저서 지금엔 아조 거의 근치의상처도 낫게되엿습니다 오직 귀사의약의 은덕인줄을 아옵고감사하나이다

이상은 지면에 한이잇으므로 레장의 일부를 게재함에 불과합니다 또、복사의주약은 의약학상 최고권위약으로 정평이잇습니다。 그허대효과는 다년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절저적 전치약으로 주장하시는 근본적치료약입니다。하로바삐 이약을 전치하십시요。

림질 별제(팔일분) 팔원 약득제(팔일분) 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 팔원 약독제(십칠일분) 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一二三一五七番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라구

책임제약인만큼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적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鍾路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旭山鮮兵町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京町三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四番通 有田도락구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撫順東大條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奚巷路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濱 有田도락구
大連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三六九個所夜學에 七千八百餘名收容
—지난三月末現在의統計— 刮目할咸南의啓蒙熱

【咸興】 함경남도 지방과의 조사에 의하면 삼월말현재 경영중에잇는 야학교(夜學校)는 삼백륙십구교로 생도수는 남자사천칠백사십사명 녀자삼천일백사십구명합계 칠천팔백구십삼명의다수로 생도들을연령별로 보면최고륙십사세의 고령자로부터천하륙세까지라고한다

沙里院發展의癌
垈地四割以上이個人의占有로 家屋建築等에借地를안하

【沙里院】 발전도정에잇는사리원은 근년에잇서서 대소공장과학교 재판소등의 시설로인하야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는것이사실이나 그 비례로 가옥수는불지안이하야 차가(借家)에만흔 고통을당할뿐 안이라 집세가엄청나게빗싸저서 집 업는사람들의 생활에 만흔영향을 밧는다는데 인구증가에따라 가옥이불지못하는 원인은 사리원시가지의대지(垈地) 사할이상이 궁본(宮本)이라는사람의 소유토지임으로빈부를 물론하고 차지료를 지불하게되여 신가옥을 건축하랴 하야도 궁본의토지를 차지하지안으면 집을지을수가업서서 사리원 발전에 중대한문제의하나로 되어오든중 최근에는 가옥건축에대지를 전연빌려주지아니하고 매각만을하야 여간한사람으로서는 한평에 십여원내지수십원의 가격으로 대지를사서 그와가티 가옥수가늘지못하는것이라는데 사리원의 대지문제는 실로발전상 큰문제이니 만치 일반시민당국의 알선또는대책을 강구하야주기를 희망한다고한다

全平壤職業 女性大運動會

【平壤】 서선일보사평양지국 주최인 제이회 전평양직업녀성육상경기대회는 이십팔일오전아홉시부터 부내 공설운동장에서 거행키로 되엿다 방서 참가단체는 평양양말동업조합 동양제사 전매지국 대동자동차부외에 개인들의 참가로 이십오일의 신청기일을 압두엇슴에불구하고 삼백여명의 다수에달햇다 그런데 단체는 삼십명으로 제한되엿고 개인참가는 현재평양에서 일정한직업을 가지고잇는 녀성이면 누구나 참가할자격이 잇다한다

聖德學院盛運 備品寄贈遝至

【公州】 공주군반포면 성덕리(成德里)에서는 송재현(宋載鉉)씨의 경영하는 성덕학원(聖德學院)은 그곳 유지등 다수한 긔부로 긔본재산이 되어 학원유지가 완전케되엿 지난십오일에 그곳 윤덕(尹德)군의 명의로 십오원가격되는 대종(大鐘)일개를 긔증하엿스며 동군장기면라성리(羅城里) 사는 림헌갑(林憲甲) 림헌도(林憲道) 김관용(金官用)씨 등이 칠십여원가격되는 풍금(風琴)일좌를 긔증하야 학원의 식용물로 사용하게되야 전긔제씨의 특지를 칭송한다고한다

現實를咀呪 靑春男女情死

【平壤】 해화와 앵화가란만한 꼿의봉춘을구가하는 상춘의행락을 등지고 독약을마시고 정사한애처러운 남매의비가(悲歌)가 잇다—평양부내이흥리 유곽장춘관 김성기(金聲基)의지창기윤춘도(尹春桃)(二三)의 방에서는 십구일오전한시경 고민하는소리가 들니어오므로 주인 김성긔가의아하게 생각하야 문을여러본즉 춘도는 신암리에 동무혜는 인흥리오경희(吳敬熙)(二三)라는 청년과 함께 붉은피를토하고 허더거리고 잇는것을 발견하고 망지소조하여 여주시부근병원에서 의사를 청하여다가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춘도는눈물과 한만흔 이십일세를 일긔로 그만절명되엿고 남자는 도립병원에서 춘도를부르면서 차차 정신을 회복하야 생명에는 관계업슬듯하다 그런데그두사람은 무엇때문에 죽엇슴가? 춘도는 경희와수개월 전부터 사랑하는사이가 되엿섯스나 사백사십여원이라는빗이 잇서서 이생에서는 목적을달할수업스므로 차라리저생에가서 진정한사랑을 구하고저 정사한것이라는데 정사한두명의 벼개아래에는 남녀가각기 써노흔 유서두통이잇섯고 또한서숨어보흔 식도도잇섯다는데 독약으로 생명이끈허지지아느면 식도로라도 목적을달하려는결심이엇든모양이라한다

此所謂,능견난사, 貧民窟의共同貯金을 分配協議中突然紛失

【大邱】 대구부남산정일백륙십일번지에잇는 속칭백간옥(百間屋)이라는 유명한빈민굴에서는 백여호의빈민이 푼푼이 모아노흔 이백륙십원이라는 거액의 공동저금이 분실된사건이 발생되엿다 이사건의내막을 듯건대 이백간옥행랑의 지세(地稅)가 매월오십오원식이엿든것이 수년전에 삼십오원으로 감하되자 이감하된이십원을 매월저금하기로하고 이술행랑사람들이 게(稧)를모아서 오늘에 그저금이 이백륙십원십전이 되엿든바 춘궁에쪼달니어 생도를일흔 그네들은 이저금을차자서 분배하기로결정하고 지난십사일에 이저금을차저다가 게궤(稧櫃)에다 너어노코 여원회를열고 분배방법을 협의한후 전긔게궤를열어보니 의외에 들엇든금전이 흔적도업시누구에게인지 절취를당한것으로 극비밀리에 수사중인바 이것은그내용을잘아는자의한짓이리라고한다

工費八萬圓으로 江景川을總埋立

【江景】 금강치수공사의 주공을 따러강류(江流)를 돌리는관계로 강경시가의 중앙을흐르든 유서 깁흔강경천은 필경무용하게되엿스므로당국에서는 이것을 팔만원의공비로 총매립을 하야일반에게 실비로서분양(分讓)하리라는바 시가정리상 필요한사업인 동시에 궁민구제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적절한공사이면서도 옛날의 면모를잃는 애석이다소 잇다한다

稀有의證券詐欺漢 最高三年役言渡
十九日咸興法院서

【咸興】 원산대구(元山大邱)량부에서 발행한공채증권을 다수위조하야 사변간에 이십여만원의 오만삼천여원을 각처 대금업자에게서 사긔하여먹은 허세의대중원 사긔마대사각장 (大旺能吉)(三〇)대사능길 (大旺能吉)(六)의 부자에관한 언도공판은 십구일오전 열시부터 함흥법원에서 개정되어 미전판사로 부터능길에게 징역 이년(미결일수이백륙십일통산) 각장에게삼년 (미결일수사백오십일통산)의판결이 잇섯다한다

行旅死亡者數 一年間五十五

【公州】 작년사월이래일년동안에 충남공주군내에서 류리걸식하다가 행려사망한자가 오십오명중 공주읍에서 매장한건수만도 삼십오명이라고한다

安東市周圍에 土兵抜扈激甚

【新義州】 안동현시가를넘겨노코 그주위각처에는 이지음토병이 크게발호하야 출몰이 빈번하야엇다 금무장토병이 안동시내에까지 나타나 금전을강탈하고 인질을랍거하는등 크게소란한데 안동현서바루시외륙도구(六道溝) 칠도구(七道溝)와압록강상하류등지에는 상당히 만흔부대가웅거하고 잇는모양이며 오룡배(五龍背)부근에토병의대부대가잇서 안동시내의 상황을 비밀히탐정하는등 안동성공서(安東省公署)를습격한다고호언한다하야 이대책으로안동경찰서에서는 진강산(鎭江山)꼭대기에 탐조등(探照燈)을설치하고각방면을경계하며 또각도구방면으로부터 안동시내에로통하는 각도로를엄중히 경계하는중이라한다

飮毒自殺한女子
男便無職을悲觀 媤叔의身勢만질수업다고 二通의遺書를남기고

【平壤】 자본업는살림사리직업조차업는남편에 어린것은 들씩 되는데 그날그날생계는 리발소공이라는 시아제비의 만치못한수입을가지고 유지해나아가는데 시아제비에게 긋업는신세만 끼치고사느니 찰하리죽어 이꼴저꼴안보고 한사람먹고 입는것만이라도 시아제비의 신세를덜어주는것이 올타는생각으로 양잿물을먹고 자살한 박명녀성이 잇다—그는 평양부내서변리(西邊里)장식운(張植云)의처한운희(二七)로 그는원래평안북도의주태생으로 시집온후 넉넉지못한살림에 주변성업는남편은 한가족을 먹여살리지도못하는데 여덜살먹이맛아들과 여섯살된 딸재아를까지 어린것을나케되고 살아갈것은 점점막연하야 할수업시 그시아제비되는 사람의만지못한 돈벌이에 다섯명가족이목숨을매고그날그날의 생활을보장하여가나 허구한세월에 동귀간신세만 지고사자기도 딱한일이라 그는 남편과 시아제비에게 남기는두장의유서를 한달동안이나걸려 써노코 그와가티죽기를 결심하얏스나 양잿물살돈조차 업서서 이웃집에가서 돈오전을취해가지고 양잿물을사가지고 지난십칠일밤 열한시경에 마신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즉시협화의원(協和醫院)에입원케하야 응급수당을 바덧스나 그잇흔날인 십팔일오후 세시경에세상을등지고 영원의길을 떠나고 말엇다한다

技術的問題로 瀆職公判遲延

【咸興】 소주에 물을타서 주정도수(酒精度數)를 히박케하는것이 탈세(脫稅)에 큰영향을 주느냐하는 기술적문제에대하여 일시공판에 일대파문을이르킨 원산세무서의옥사건(元山稅務署疑獄)의한장호(韓長鎬)등오명에관한속행공판은 십구일오후두시부터 함흥법원에서 림촌주심의여지업는 다수방청리에 개정되여 전일증거신청한주정도수히박에 관한 기술적문제로 함흥 세무서 주세 감독자를 증인으로 극히 면밀한 심문을 하엿든바 아즉까지 다수의의아한 점이 만으므로다시현장실지검증을하기로하고폐회되엿는데 속행은 오월상순이라는바공판결과는 자못 주목되다고한다

養母는逃亡가고 養女死因은模糊
安州警察署活動開始

【平壤】 안주군 신안주면 삼흥리(安州郡 新安州面 三興里)서춘화(徐春化)(二〇)라는녀자는 수년전에안선녀(安仙女)(七)라는 녀아를양녀로어더다가 기르든중지난달 하순에돌연사망햇다 그런데 최근에와서 선녀가죽은원인이 괴상하다는 소문이동리에서 돌아다니더니 서춘화마저 행방을감초고 말엇다 소관안주서에서는선녀의시체를 묘지에서 발굴하여 해부에부치는 일방서춘화의행방을엄중수사중인데 무슨생각으로 남의아이를양녀로마저는 노앗스나남의자식이 귀치안허 임상비할수업는 학대와 구박을가하다가 급기야 생명이끈허지게되엇스므로사실의발각을두려워 다라나고만것이라한다

三千浦에紅疫猖獗 死亡者十餘名
現在罹患者도多數

【三千浦】 경남삼천포에는해마다 홍역(紅疫)이류행하야사망하는아동의수효가 적지안튼바 근일에도 홍역이창궐하야 십여일동안에 사망한아동이십여명에달하며현재리환자도헤아릴수업는바어린이를가진부형은 극도로공포중에 잇다한다

牛市場施設에 特志義捐遝至

【竹山】 경긔도죽산우시장이인가되엿슴은 루보됨바어니와 우시장시설경비가 다대히들것임으로 동긔성회임원들은 만흔노력을 하야오든바 재작십칠일에 시민회를개최하고모든사항을협의하는동시재일문제인 경비의거출방법을 강구하얏든데 좌긔제씨가찬조금을자진희사하얏고 뒤를이어 찬조금이신립되엿슴으로동임원들은활긔를띄고 시설에매진중이라한다

金百五十圓 梁在元 金百圓 中野讓一 金四十圓 李鍾七

凶作의影響으로 中途退學이激增
咸南道內二百餘初中等校에서 十個月間에三千餘名

【咸興】 작년중의흉작해독은점점 학원의아동에게까지 미처되엿 쓰라린맛을 맛보게하엿스니 이제함남도에서 작년사월부터 금년일월까지 십개월간초중등학교 이백여교에서 중도퇴학생이 삼천여명의 다수에달하엿다는바 그중 중등학교생도가 륙십여명이라한다

北朝鮮開發의重地 港灣修築을促進
—關係要路에陳情—

【城津】 북조선중요무역항으로지방산업개발의 근간(根幹)을 삼고잇는성진항은 제일제이의 항만수축계획의 틀지못하야 관계지방민의우려가 대단하엿다고한다 그런데 혜산선철도, 북조선 개척사업, 성진목장, 성진철도사무소실현, 오지보고의 개발등의 가속도의발전을보게되엿고 다시북선 제지공장 마그네싸이트공장등이 성진항권내에신설되는것은 움직일수 업는사실임으로 금년도무역 예상은삼십만톤에 달하리라하며 오년후소화십사년에는 백만톤을 무난히돌파할현상으로 항만수축실현은 초미의급무라하야 축항긔성회와 상공회에서는 지난십오일부로 요로당국에소화십년도 예산에 실현되도록진정서를 제출하엿다고한다

十六미리通信

假醫生을取調 【馬山】 지난십칠일마산서에서는가의생(假醫生) 한명을 검거하야 엄중취조를 계속하는중이라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그는 남해군창선(南海郡昌善) 출생으로서현재마산부원정(馬山府元町)에 거주하는 박일민(朴日民)(四四)이란 자로서평소매약을 전문으로 영업하얏스며자칭 안병(眼病)부인병(婦人病) 전문이라하야 다수의 환자를취급하여오든바 지난십칠일 마산부부정(馬山府富町)김영순(金永順)과원정(元町)옥금악(玉今岳)의안병을 수술치료하다가마산서원에게발견되여검거된것이라한다

火災民에同情 【博川】 지난십구일 평북 박천읍내(博川邑內)의대화(大火)로지칠호가전반소되엿다함은 긔보한바 어니와이재민의대부분은 대령강포구(大寧江浦口)에서로동을하여그날그날을지나오든바 이외의 참변으로 로천(露天)에서 울고잇는 비참한 정경을본 박천시민들은 자진하여 동정금 일백십구원 륙십전을모아 리민에 분급하엿다하며 더욱이당지사립협성학원 생도들은 일원삼십여전을모아성선을동하야 재민에게전달하엿다고한다

林[illegible]鶴氏盛擧 【咸昌】 경남거창읍내에서 자선가로 이름놉흔림[illegible]학(林[illegible]鶴)씨는 평소 보통사람의 맛보지못한 생사리를하야 모온재산으로 자선사업에는 선두에서서 활동하야오든바 금번에는 함창전남부안읍석곡면(谷面)에사는빈족들이 생활하야러처로 유리하는자가 만흔 소식을듯고 개련히생각하야 마침천원을투자하야 이백락의토지를사서 지극히 죽신여호의농경지로제공

信川穀協定總 【信川】 신천곡물상협회에서는 지난 십사일 제십칠회 정긔총회를동회신축회관에서 개최하고순서에준하야역원을 개선하고 제반사항을토의한후 무사폐회하엿다고한다 ▲會長朴泰翊 ▲副會長金泰國 ▲幹事李泰煥 金泰仁 楊在英 ▲監査金孝鎭 韓泰煥 ▲評議員韓泰浩外五人

新炭市場開始 【延安】 연백군연안읍내에는 도시화 하고잇는시가로일정한신탄시장이업서서복잡한시가에교통을방해하야일반교통상인사에게 다대한 불안을주든차금번연백경찰당국에서통남리구우시장(延南里舊牛市場)을리용하야 신탄판매시장을 정하고래이십일부터신탄장을개시케하엿스나가로무단이 왕래함을 엄중히 금지케하리라고한다

平壤

平壤洋服商組運動

▲日時 四月三十日午前十時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主催 平壤洋服商組合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光州

南朝鮮蹴球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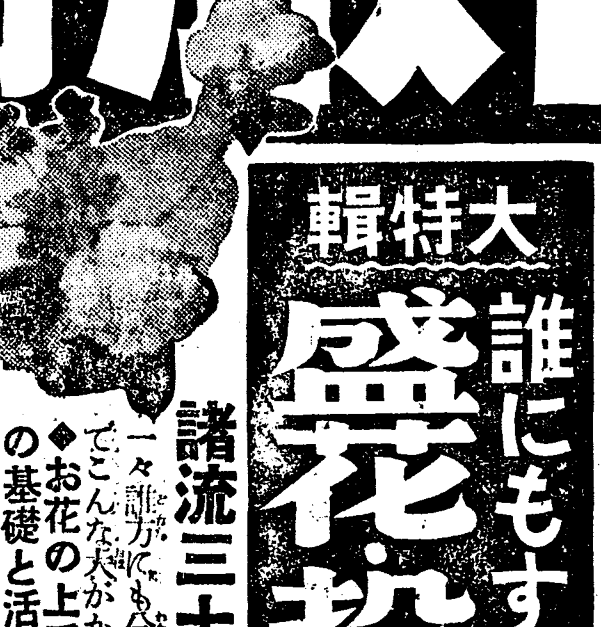
◇時日 五月二十五、六、七三日間
◇場所 光州高普球場
◇主催 朝鮮日報社光州支局
(詳細追後發表)

地方人事

▲金海觀察團一行 十四名은裴鍾蓮氏引率下에二十日朝入京市內武橋町第三旅館에
▲矢野敏夫氏(鎭海金融組合理事) 新任人事次本社鎭海支局來訪
▲金昌培氏(大召院金融組合長)再任人事次本社忠州支局來訪
▲李鍾晥氏(醫師)今般新任公醫 人事次로本社白川支局來訪
▲今井安太郞氏(江西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社江西支局來訪
▲姜泰淼氏(江西警察司法主任)同上
▲宗前清正氏(江西警察警務主任)同上
▲梁昌俊氏(本報咸安分局長)上京
▲文士事件으로馬山警察署에二十一日間引致되엿다가去十七日歸局

婦人俱樂部五月號大評判の別冊大附錄

夏の子供服・婦人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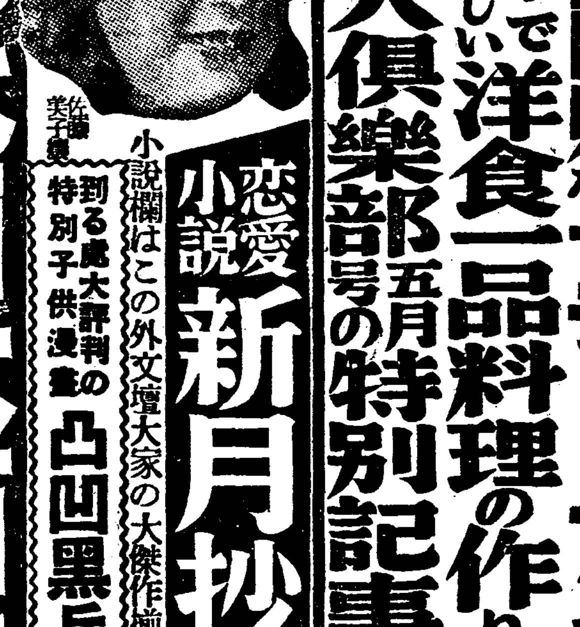


大特輯
誰にもすぐ出來る 盛花・投入・生花全集
諸流三十四大家が擧って秘傳公開！
一々誰方にも分り易い親切な說明を加へた鮮麗無比な大畫報つきでこんな大がかりな誌上講習は眞に婦人雜誌界空前と大評判！
◆お花の上手な飾り方 ◆簡易水揚法二百種 ◆盛花の基礎と活け方 ◆投入の基礎と活け方 ◆生花の主なる流派とその花型 ◆活花の新常識等々
之れを御覽になれば全く初めての方にもすぐ立派なお花が活けられる素晴しい大附錄です。

誰方にも材料実費でステキナ新型が出來ます
一流大家考案の新型數百種の中から更に選り抜いた素晴しい新型四十種の作り方發表！
今年流行の新型ばかり―●可愛い赤ちゃん物、男女兒用、女學生用、婦人物迄悉く發表！●一々實驗濟み、全部親切な圖解說明つきで誰方にもすぐ出來ます ●立派な洋服が材料費だけで出來るので重寶、經濟この上なし、趣味と實用を兼ねた附錄と大評判！尙御希望の方には裁斷無料お取次致します。

▲女の貞操・男の貞操座談會 男女の貞操について實際上の諸問題を各界一流の名家が赤裸々に公開された大座談會
▲晩婚の私が人も羨む程の幸福を得る迄 晩婚であり乍ら何人も羨む程の幸福を得られた方々が發表された特別記事！
▲樂壇の名花 佐藤美子結婚ロマンス 日本隨一といはれる情熱の歌姬佐藤美子孃の麗はしくも床しい結婚ロマンス！
▲頑固な便秘を自宅で治した經驗 永年惱み拔いた頑固な便秘を自宅で簡單に治した奏效確實な療法を體驗者發表！
▲若白髮を家庭で治した私の經驗 若白髮が家庭で完全に治る簡單な最新秘法を公開！御惱みの方は即刻御覽下さい
▲二萬円貯めたサラリーマン打明け話 無理をせずに、誰方にも出來る！安全確實な利殖法を體驗者が赤裸々に公開！
▲簡單で美味しい洋食一品料理の作り方 手近な材料で、どこの御家庭でも簡單に出來る新時代の洋食一品料理の作り方！
▲婦人俱樂部五月號の特別記事 (この外大畫報、重要記事、名小說等々ギッシリ滿載！)

戀愛小說 新月抄 久米正雄 運命の岐路に立つ美貌の女學生伶子！全女性大熱狂の問題小說に興味の絕頂
小說欄はこの外文壇大家の大傑作揃ひ！
到る處大評判の特別子供漫畫 凸凹黑兵衛



佐藤美子氏

急告 素晴しい大奮發！ 大附錄つき五十錢 非常な評判ですから呉々もお早くお求め下さい 書店で賣切れの際は、至急本社へ御注文下さい
本眞珠指環贈呈大懸賞 本誌上で大人氣の日本一美人選の大懸賞！詳細は本誌に發表！

現代日本百美人選 全國から選ばれた現代日本の代表百美人選第三回發表！素晴しい懸賞つきで全女性大熱狂！

特價五十錢 (送料六錢) ◆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全國書店にあり)

입으로드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하게하는!!

衛生口錠

カオール

口中殺菌劑

オリヂナル香水의進呈은
本月卅日까지로締切함

『原料香水』
オリヂナル香水
小瓶(定價金五拾錢)을
先着廿万人에限하야
進呈!

弊堂特製
東洋香水界第一

特長
▼놀을때마다한개식재미잇게나온다
▼더나오거나덜나오는법이업시필요한개수를복용할수잇슴
▼輕快하고도가지기편함
▼모양이맵시잇고빗은회색

(擴大圖)

進呈方法

カオール를愛用해주시는표로써
本劑定價金壹圓以上에
相當하신空函(袋入十錢・廿錢에限하야上包의效能書・三十錢以上은空函各種을綜合해도좃슴)에
送料及包裝費로三錢切手二枚를同封하시고
第一種郵便(二로十五瓦(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付하시압)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奉仕係에
送付하시면上記의
オリヂナル香水를進呈함니다
但一名에한개로限함

新發賣
『保健容器』
五百粒付
金五拾錢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포켓트容器添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光輝金石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徳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